

## 명사의 속성과 체언의 양범주 분석\*

김정필\*\*

### 【목 차】

- |                      |                     |
|----------------------|---------------------|
| 1. 서언                | 3. 명사의 속성과 어법범주의 대립 |
| 2. 명사의 공간성과 의미범주의 대립 | 1) 공간량의 범주표지와 방위사   |
| 1) 분리성과 연속성의 대립      | 2) 물량의 범주표지와 양사     |
| 2) 물량과 공간량의 대립       | 4. 결어               |

### 【초록】

본문은 최근 중국어 연구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양범주’ 이론을 통해, 품사분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의미범주나 어법범주가 어떻게 양화(量化)되어 나타나는지를 명사의 속성 대립을 통해 간략히 고찰해 보았다. 본래 ‘양범주’ 분석은 실사의 속성을 기반으로 범주를 분석한 것으로, 명사의 공간성과 동사의 시간성, 그리고 형용사의 정도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개별 단어의 품사 경계가 모호함으로, 본문에서 제시하는 명사의 양범주는 구문에서 체언으로 기능하는 성분이 어떻게 양화(量化)되어 명사성을 드러내는지를 의미와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 체언의 속성 양범주인 공간성을 구성하는 ‘공간량’과 ‘물량’이 실제 구문에서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방위사와 ‘양사’의 대비분석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키워드】 양범주, 공간성, 시간성, 정도성, 방위사, 양사

\* 본문은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하였으며, 본문에 인용된 예문 중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어법 교과서나 교재에서 쉽게 볼 수 있거나, 혹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기존 학자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 김정필, 경상국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jpkim21@gnu.ac.kr)

## 1. 서언

우리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사건, 성질, 상태 등은 대부분 ‘양적(量的)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속성의 양화(量化)를 통해 물량(事物량), 동량(동작량), 성질·상태량 등으로 분류하여 품사(실사)의 속성과 연계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사의 속성 양범주를 명사의 공간성과 동사의 시간성, 그리고 형용사의 정도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문에서 이러한 속성의 세부 변화를 유도하는 수식어나 보충어의 공기관계를 접목하여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 구문에서 문장 성분이 제시하는 기능상의 양범주는 품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본문에서 제시하는 명사의 양범주 또한 기본적으로는 ‘체언’의 양범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구문에서 체언으로 기능하는 성분은 주로 명사가 되지만, 중국어는 영어나 한국어처럼 형태 변화가 결핍되어 있기에, 체언화 어법기제를 양범주의 속성화를 유도하는 범주표지로 파악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사실 명사가 지닌 공간성이라는 양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지언어학의 도상화 이론을 통해 양범주의 윤곽을 그어볼 수 있는데, 일정한 속성을 범주로 계량하기 위해서는 도식화를 통한 경계의 설정과 더불어 수치를 통한 수량범주와도 연계된다. 즉 ‘도상화’의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보면,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실사의 속성은 차례대로 ‘공간성’과 ‘순서성(시간성)’, 그리고 ‘단계성’의 대비를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량범주’란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인지한 모든 사물이나 사건, 성질 등이 지니는 질량을 일정한 범주로 계량화하고, 다시 이것을 수치화함으로써, 더 쉽게 각 속성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품사의 속성 양범주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각의 언어마다 표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양의 경계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래 ‘양(量)’은 ‘질(質)’에 대립하는 말로 정의되지만, ‘수(數)’와 더불어 인간이 어떤 대상의 존재 방식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범주이다. 특히 ‘양범주’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접하면서 인지하는 주변 공간과 사물이 지니는 넓이, 길이, 무게, 속도 등을 측정하여 다양한 ‘도량형(量度)’의 단위 기준을 설정하는 범주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학에서의 양적 범주 또한 개별 언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어 구문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범주화는 주로 양사를 통해 그 범주의 구문에서 그 기능적 특징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물론 양사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량(計量)방식으로 공간이나 물건의 ‘多少’, ‘大小’, ‘位置’, ‘順序’

등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활용하여 그 경계를 인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범주’가 언어의 문법범주에서 주로 명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수치로 나타내듯이, 양범주 또한 명사 이외에도, 동사, 형용사를 형성하는 사물과 사물의 움직임, 내부적 성질 등을 계량하는 방식으로 양적 경계를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중국어에서 범주에 관한 논의는 이미 马建忠(1898)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吕叔湘(1982)의 ‘표현론’에서 제시한 장소, 시간, 행동 등을 포함한 9개의 수량범주가 이후 양범주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대부분 학자는 이것을 기반으로 양범주를 연구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인지적 도상화 방법론을 기반으로 품사의 양범주를 측정하는 이론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그중에서 명사의 속성 양범주에 관한 연구는 개체사물을 지시하는 명사가 나타내는 ‘물량’과 이들 개체사물이 점유한 공간의 경계를 기반으로 계량한 ‘공간량’을 ‘공간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형용사 또한 ‘深红’과 ‘浅红’이 표현하는 성질의 심도 차이를 기반으로 한 정도성과 정도부사 등을 통한 어법적 구분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동사의 시간성 특성은 동사 내부의 시간량과 동작의 횟수 등을 표시하는 동량사를 통한 범주의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본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명사의 속성인 ‘공간성’의 양범주 측정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우선 중국어 양범주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간량(空间量)’과 ‘물량(物量)’의 대립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sup>2)</sup> 대개 구문에서 명사성을 지녀 ‘체언’으로 기능하는 명사의 속성 양범주는 우선 ‘공간명사’를 기반으로 ‘공간량’의 경계를 그어 볼 수 있으며, ‘사물명사’ 또한 분포 위치나 일정한 범주표지를 부가하면 ‘공간량’을 표시하는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 ‘물량’은 ‘사물명사’를 기반으로 측정하기는 하나, 공간과 기관 등을 동시에 지칭할 수 있는 ‘공간명사’ 또한 물량표지를 통한 물량화의 개연성도 지니고 있다. 최근 인지언어학의 도상화 분석은 품사의 어법 기능을 중심으로 한 ‘양(量)’범주 계량의 경계 설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기존의 설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본문에서도 당장 속성 양범주를 계량하는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기에, 비교적 우리가 더 쉽게 명사의 속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량’과 ‘물량’의 구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어 양범주 연구에서 명사의 속성 양범주인 공간성 내부의 대립관계를 설

1) 赵国军(2015)는 ‘수(數)’는 분리된 개체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언어 사용 중에 표현되는 수와 수량은 자연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였다.

2) 공간성 내부에 존재하는 ‘공간량’ 이외에 ‘물량’은 중국어 양범주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한국어로 이해한다면, ‘물량’은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 사물, 대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명하는 ‘공간량’과 ‘물량’은 기본적으로 ‘大小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존재문’을 중심으로 명사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명사 중에서도 추상명사와 같이 선명한 경계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나, 동사나 형용사 등이 체언화된 경우에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에, 구문구조 내부의 양범주 표지이자 어법기제인 방위사와 양사를 통해 ‘공간량’과 ‘물량’을 경계를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선 중국어 존재문에서 나타나는 ‘공간량’과 ‘물량’의 어순대비를 살펴보고, 아울러 어떠한 성분이 ‘물량’과 ‘공간량’을 구별하는 범주와 표지로 작용하는 양사와 방위사의 대비관계를 통해서 형식기제의 특징도 아울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명사의 공간성과 의미범주의 대립

### 1) 분리성과 연속성의 대립

‘양범주’ 분석은 본래 ‘질(質)’에 대립하는 ‘사물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되는 ‘양(量)’의 개념화에서 출발했으며, 언어학에서는 범주화의 기준이 되는 수(數), 시간, 공간적인 넓이, 무게, 속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을 품사나 어법범주를 규정하는 경계 설정에 응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철학에서의 양(量)적 규정은 자연 또는 사회의 객관적인 법칙에 존재하는 질적 규정성을 무시하고 일정한 단위를 통한 양적 범주를 일련의 규정성으로 파악하며, 분리량(分離量)과 연속량(連續量)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간단히 양범부 분류를 언어학의 품사분류와 연계해서 살펴보면, 명사 중에서도 과일, 의자, 책상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가수(可數)가 개체 명사는 분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물과 같은 액체 성분을 지칭하는 말이나 추상명사 등은 연속량(連續量)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학에서 ‘분리량’이란 단수와 복수로 간단히 양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개체성의 사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수(可數)가 불가능하여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운 ‘연속량’의 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위사나 양사와 같은 다양한 단위의 설정을 통해 윤곽을 파악하여 설명하게 된다. 다시 철학적 정의를 빌리면, 연속량은 다시 외연량(外延量)과 내포량(內包量)으로 나뉜다. 즉 외연량은 두 물체 또는 물질을 합하면 크기, 넓이, 무게, 부피 등과 같이 범주의 외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양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합하더라도 외형적 변화가 없이 내부적인 성질의 세기를 결정하는 밀도·속도·농도·이율(利率)·함유율 등 ‘도(度)’와 ‘율(率)’로 나타나는 성질의 세기를 측정하는 값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이러한 분리성(分离性:离散性)과 ‘연속성(连续性)’의 구분은 명사의 속성 양범주를 ‘물량(物量)’과 ‘공간량(空间量)’으로 구분하는 토대가 되며, 두 대립쌍 사이의 연계성은 ‘분리성’과 ‘물량’, ‘연속성’과 ‘공간량’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즉 명사의 속성 양범주는 ‘분리성(分离性)’과 ‘연속성(连续性)’을 기반으로 구문에서 체언으로 기능하는 성분의 계량(计量)하게 되며, 명사 전체의 의미범주가 가지고 있는 각 원소가 지닌 ‘속성’의 강약 대비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 즉 분리성이 강하다는 것은 개체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것과 ‘수(數)범주’로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연속성이 강하다는 것은 원소의 속성이 액체나 기체에 가까워지며 개체화할 수가 없어서, 개별화를 통한 계량작업이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리성이 강한 실체는 수량사의 조합이 아니더라도 계량작업이 쉬우며, 연속성이 강한 실체는 계량 도구인 양사를 통해서만 계량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래 ‘공간성’은 현실 세계의 사물을 지칭하는 품사인 명사의 속성을 대표하며, 사물과 그 사물이 현실 세계에서 점유하는 일정한 ‘점도식’과 ‘공간도식’으로 대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명사는 ‘공간성(spatiality)’을 기반으로 형성된 속성 양범주는 크게 ‘물량’으로 인지되는 ‘사물명사’와 이러한 사물을 포용하는 일정한 공간으로 ‘도상화’된 ‘공간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물량’으로 인지되는 사물명사는 대개 가수(可數)와 불가수(不可數)를 기반으로 개체명사와 추상명사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다시 개체명사는 단수(單數)와 복수(複數)라는 대답으로 그 차이를 구별한다. 이러한 수범주를 기반으로 구별하는 개체명사는 단어 자체의 형태변화를 통해 ‘어법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중국어와 같이 형태변화가 거의 없는 언어에서는 양사라는 외적 성분을 통해 계량의 ‘어법의미’를 표시하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표음형 언어에서는 명사 자체에 수범주를 함유한 경우가 많아 양사의 범주화 기능을 주요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 표의성 언어인 중국어는 각 품사를 구별하는 형태 성분이 없어서 ‘수(數)범주’를 표시하는 수사를 단복수를 구별하는 주요한 어법 기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어에서는 대부분 명사의 수범주를 표시하는 양사나 공간성을 제약하는 방위사 등은 각기 구문에서 구문에서 문장성분의 어법범주를 표시하는 형식기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명사의 공간량과 물량을 상호 전환하게 하는 주요한 표지가 된다. 즉 구문에서 체언의 양사 및 방위사의 선택은 모두 일정한 인지적 근거에 의해 결정됨과 동시에, 명사의 물량과 공간량을 구분하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네이버 지식백과] 양 [quantity, 量]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및 철학사전의 개념 참조.

## 2) 물량과 공간량의 대립

명사의 속성 양범주인 ‘공간성’은 크게 ‘공간량(空間量)’과 ‘물량(物量)’의 두 가지 속성으로 계량되는데, 중국어 존재문은 이러한 ‘공간량’과 ‘물량’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구문이다.<sup>4)</sup> 특히 중국어 존재문은 술어를 중심으로 주어(혹은 부사어)와 목적어의 두 공간성이 분포위치를 중심으로 ‘공간량’과 ‘물량’의 어순이 대립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대개 ‘배경(背景)에서 전경(前景)으로’, ‘대(大)에서 소(小)로’, ‘고정(固定)에서 이동(移動)으로’ 등 세 가지 시간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 주장이다.<sup>5)</sup> 물론 이러한 어순 대립은 존재를 표현하는 구문의 성격에 따라 어순의 반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러한 주장은 대표적 존재문인 ‘有’자 구문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 (1) a. 花间一壶酒. (花는 공간, 酒는 실체)  
b. 酒中一枝花. (酒는 공간, 花는 실체)
- (2) a. 苦中有乐, 乐中有苦.  
b. 画中有乐, 乐中有画.
- (3) a. 上海滩高楼林立. (上海滩은 공간)  
b. 我的最爱上海滩. (上海滩은 실체)

위에 제시한 예문(1)은 고문이나 시에서 볼 수 있는 구절형식의 구문으로, 술어동사 ‘有’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중국어에서는 예문(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자문의 구성과 같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으며, ‘공간량-물량’의 순서가 적용되는 중국인의 사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예문(1)에 사용된 두 개의 ‘花’는 개체명사로써, 단순히 어휘적 성질만으로는 모두 한 개의 꽃인 실체로 ‘물량’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예문(1)a의 ‘花’는 방위사 ‘间’과 공기하면서 ‘공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다수의 꽃이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후행하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수량사 ‘한 주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꽃이 아닌 꽃무더기에 더 가깝게 인식할 수 있다. 반대로, 예문(1)b의 ‘花’는 수량사 ‘一枝’를 만나 한 송이의 꽃으로 한정이 되고, ‘물량’으로 인지할 수 있는

4) 黄健秦, 「空间量—物量」范畴与存在句式, 『语言教学与研究』, 2018, 第6期(总第194期), p.93.

5) 이러한 중국어 존재문에 나타나는 ‘空间量—物量’ 사이의 대소대비는 이미 李宇明(1999, 2000), 吴卸耀(2006) 등에서 제기되었으며, 명사가 지닌 ‘분리성’과 ‘有界性’은 모두 계량의 ‘공간량’이나 계수(计数)의 ‘물량’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 송이의 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공간량과 물량의 대비는 예문(2)의 ‘有’자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예문(2a, b)에서처럼 주어에 위치하는 성분은 품사에 상관없이 ‘공간량’을 나타내며, 목적어에 존재하는 성분은 ‘물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예문(3)a에서 ‘上海灘’은 무표성의 공간명사인 그대로 ‘공간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예문(3)b에서는 ‘上海灘’은 분포위치의 전환을 통해 공간이 실체(实体)로 바뀌면서 ‘물량’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마도 위의 예문에서 ‘有’자가 생략된, 혹은 없이 사용된 존재문은 분포 위치에 따라 중국어의 전통적 인지구조인 ‘공간량’과 ‘물량’의 ‘大小대비’가 그대로 어순구조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량’과 ‘물량’을 어법구조가 지니는 분포 위치의 대비는 주어 혹은 부사어에서는 ‘공간량’을 나타내고, 목적어에서는 ‘물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6)</sup>

### 3. 양범주 표지와 어법범주의 대립

#### 1) 공간량 표지와 방위사

명사의 속성인 ‘공간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대개 길이(장도), 면적, 및 체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부 공간명사를 제외한 명사의 ‘공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위사를 부가하게 된다. 또 ‘물량’의 측정하는 양사는 세계 혹은 국가 공인의 단위일 수도 있고, 민간에서 통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 앞에서 ‘양사’와 ‘방위사’를 ‘물량’과 ‘공간량’의 대립으로 평가하였으나, 길이의 경우에는 개사를 통해서 통속적인 공간 단위인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으며, 인체 부위나 인체 부위와 관련된 운동, 혹은 상호 관계의 길이로 측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길이’를 통해 드러나는 ‘공간량’은 물체 자체의 공간 거리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물체 사이의 ‘거리’를 포함한다. 또 거리에는 ‘정태적 거리’와 ‘동태적 거리’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4) 离他家不远有一条河, 叫秦淮河. (정적거리)

(5) 两岸相距数大. (정적거리)

6)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존재문을 구성하는 ‘有’자 구문 이외에도, 존재를 표현하는 ‘在’자와 ‘是’자를 술어로 하는 구문을 구성하는 논항의 공간량과 물량의 대비는 단순히 ‘공간량-물량’의 어순 대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有’자문이나 ‘是’자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공간-물량’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在’자문의 경우에는 ‘물량-공간량’의 어순구조가 나타난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 (6) 道路改直, 两地的距离缩短了许多. (동적 거리)  
 (7) 妈妈从家门口朝南走了三十步, 挖出了她埋的箱子. (동적거리)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사를 통한 공간 거리의 측정에서는 두 개의 공간명사는 오히려 ‘점도식’으로 표현된다. 다만 중국어 존재문의 구성은 여전히 구정보의 ‘공간량’과 신정보인 ‘물량’이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술어에 선행하여 ‘공간량’을 표시하는 명사는 대개 방위사 ‘(在)……中/里/上’ 등의 형식기제와 공기하여 더 선명한 공간 경계를 제시한다. 반대로 신정보인 ‘물량(物量)’은 대개 무표형식으로 존재하거나 수량사와 같은 수식어(限定语), 그리고 时态표지(시태조사) 등의 어법 기제를 가진다.

- (8) 车里坐着一个一两岁的孩子.  
 (9) 村里出了个大学毕业生.

위의 두 예문에서 주어로 기능하는 ‘车’와 ‘村’의 기본적 인지 대상은 각기 사물(물량)과 공간(공간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방위사가 부가되면서 모두 ‘공간량’으로 측정된다. 즉 명사의 속성으로 정의되는 ‘공간성’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명사는 ‘공간량’과 ‘물량’이라는 양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구문에서는 통사 및 화용적 특성에 따라 양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 (10) 沅陵县沿河下游四里路远近, 河中心有个洲岛, 周围高山四合, 名“合掌洲”, 名目与情景相称. (1939, 沈从文「沅陵的人」)  
 (11) 澄碧的汉江, 像一条玉带从汉城穿越而过, 江上的20座桥梁, 似长虹飞跨, 蔚为壮观. (1993, 报刊, 人民日报)  
 (12) 泉眼前有一平方米大小的水池, 名曰“天池”. (1994, 『报刊精选』)

물론 위에서 주장한 세 가지 어순구조는 ‘有’자문<sup>7)</sup>을 중심으로 한 존재문에서는 공간량과 물량의 관계가 어순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존재 표현의 문장인 ‘在’자문이나 ‘是’자문에서는 완전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중국어에서 ‘공간량(空间量)’과 ‘물량(物量)’의 대립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유표성(有标性)의 형식표지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공간성의 분포적 대립관계는 선명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간량’을 표시하는 형식표지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中/前’ 등과 같은 방위사(方位词)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7) ‘有’자의 생략이나 부정문에서 복원이 가능한 ‘명사술어문’에도 모두 적용된다.



대개 개체명사나 추상명사 등에 일정한 공간 크기를 나타내는 경계를 부여하는 ‘유계화(有界化)’의 기능도 한다. 이와 달리, ‘물량’을 표시하는 형식표지로는 ‘一壺/本’ 등 수량사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량사의 역할은 사물의 ‘개체화(个体化)’를 유도하게 된다.

(13) 湖中心有个亭子.

(14) 门前有一块广场. (蒋子龙『赤橙黄绿青蓝紫』)

(15) 直到车子进入上海市区, 车窗外显示出万家灯火, 她才痛切地感到悔恨. (刘心武『七舅舅』)

위의 예문(14)와 예문(15)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는 공간량과 물량의 대비로 나타나지만, 단순히 어휘의 각도에서는 주어로 기능하는 ‘门와 车窗’가 오히려 ‘공간’으로 인식되는 목적어 ‘广场과 灯火’보다는 ‘공간량’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밑줄 친 공간 표지의 ‘中心’, ‘前’, ‘外’가 공간량을 지시하게 유도하여, 실체를 ‘물량’을 ‘공간량’으로 양적 변화, 즉 변량(变量)을 유도하는 공간화 표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존재문의 후반부 ‘NP’는 오히려 개체화 표지인 수량사 ‘个’, ‘块’, ‘家’가 그 범주를 제약함으로써 ‘물량’을 표시하게 된다. 즉 ‘물량화’는 ‘공간량’과 질적으로 다른 개체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大-小’의 대비가 일어남과 동시에 ‘공간량’과 ‘물량’은 ‘배경-전경’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 표지의 역할은 공간명사와 사물명사가 반드시 ‘공간량’과 ‘물량’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특히 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연속성(连续性)’을 지닌 명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간표지의 ‘방위사’와 양표지의 ‘양사’를 보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역할을 증명된다.

(16) 草地上有两棵百年橡树, 树下形成两大块荫影. (左拉『娜娜』)

(17) 空气里有一股特别新鲜的气息. (契诃夫『复活节之夜』)

(18) 空气中隐隐有了一丝寒意, 秋已经深了. (格非『江南三部曲』)

위의 예문에서 단순히 ‘草地’는 객관적인 ‘공간량’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공간 내부의 ‘연속성’으로 인해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百年橡树’라는 사물을 ‘점도식’으로 활용하고, 방위사 ‘上’을 부가함으로써 우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예문(17)에서 ‘空气’의 공간량은 그 범주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더더욱 힘들며, 또 다른 불확정 사물인 ‘气息’가 나타나는 증기의 윤곽을 통해 두 경계를 인지할 수 있다. 즉 화자와 청자는 사물인

‘气息’가 제시하는 ‘접도식’을 전경으로 하여, 배경인 ‘空气’의 공간량을 대비하여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량과 물량의 대비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이전에 ‘사물’과 ‘존재’의 이중적 구문분석으로 논란이 되었던, 다음과 같은 구문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술어에 선행하는 ‘台上’은 ‘공간량’을 표시하고, 술어에 후행하는 ‘主席团’은 ‘물량’으로 대비되는 전형적인 ‘존재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언어습관으로는 무표지의 ‘主席团’이 지니는 의미범주를 한정·비한정의 서로 다른 대립관계로 인지함으로 인해 ‘사건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즉 아래의 예문은 단순히 ‘공간량’과 ‘물량’의 대립이라는 객관적인 양의 측정이라기보다는 화용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19) 台上坐着主席团.

본래 중국어 구문에서 목적어에 위치하는 체언(명사)은 비한정적 특징을 지니지만, 중국인에게 ‘主席团’은 여전히 확정적인 특정 대상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인은 ‘존재문’인 “台上坐着主席团”에서 목적어 ‘主席团’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지함으로써, “主席团正在台上坐着”로 전환하여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단순히 진행과 지속을 나타내는 ‘사건문’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sup>8)</sup> 만약 양범주의 각도에서 위의 예문이 지닌 중의성을 없애는 또 다른 방법은 ‘主席团’의 ‘물량’ 속성을 강화하여 개체화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중국어에서는 개체양사 ‘个’는 이러한 개체화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물량’의 표지로써 사물의 ‘물량’을 두드러지게 하고, 특정 사물의 개체화를 유도함으로써 중의성을 상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사의 화용적 특징은 기능의 중의성 혹은 개체화된 사물의 공간성을 변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중국어 ‘존재문’의 분포 위치가 지니는 ‘大小도식’의 양적 대립을 전통적 어순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조건적 대립의 각도에서 분석할 수도 없다. 즉 아래의 예에서는 ‘一粒沙, 半瓣花’ 등은 본래 점과 같은 작은 실체가 양사의 수식을 받아서 더욱 ‘물량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어순구조에서 드러나는 실체의 작용은 ‘물량’이 아닌 ‘공간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8) 齐沪扬(1998:60)의 논리에 의하면, 공간량의 어법기제 중의 하나인 시태조사 ‘着’가 동작상태의 ‘잔존’을 표시함으로써, 술어동사의 동작성이 상실되면서 목적어인 ‘主席团’이 한정성(有定性)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중국어 화자들이 지니는 주관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단순히 어법기제에만 기초한다면, ‘主席团’은 ‘台上’에 존재하는 여러 개체 중의 하나일 수 있다.

## (20) 一粒沙中见世界, 半瓣花上诉衷情. (陈孝全『朱自清传』)

예문(20)에서 단순히 양사의 수식을 받는 ‘一粒沙’ 구조는 모래알갱 한 개라는 ‘점도식’으로 파악되지만, 다시 분포위치와 더불어 방위사 ‘中’이 부가됨으로써 실체의 ‘물량’이 아닌 ‘공간량’을 나타낸다. 즉 화자가 구문에서 인지하는 주관 세계에서 ‘一粒沙’는 너무나 큰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량’과 ‘물량’의 ‘대소어순’은 중국어 ‘존재문’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 (21) 从前有座山, 山上有座庙, 庙里有个和尚……

우선 예문(21)에서 첫 번째 구절의 ‘从前’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시간 거리를 공간화함으로써 ‘공간량’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후행하는 목적어 ‘(一)座山’은 당연히 ‘물량’으로 계량된다. 또 두 번째 구절에서는 앞 구절에서 ‘물량’을 표시했던 ‘산(山)’은 방위사(上)가 부가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량’을 표시하게 되고, 다시 목적어로 기능하는 ‘(一)座庙’는 ‘물량’으로 계량된다. 다시 세 번째 구절에서도 방위사가 부가된 ‘庙里’는 ‘공간량’을 나타내며, 본래 사물로 인지되는 목적어인 ‘和尚’은 물량표지 양사(个)가 부가되면서 ‘물량’의 경계를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서 명사가 구문에서 체언으로 기능하면서 ‘공간량’을 표시하느냐 혹은 ‘물량’으로 파악되느냐는 구문의 분포 위치를 통해 기본적 토대가 형성되고, 다시 방위사를 부가함으로써 ‘공간량’의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물론 어떤 방위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사의 공간성 강약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방위사의 어법기능과 양사의 분리성 특징, 그리고 어순대비를 동시에 고찰한다면 더 선명한 경계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물량표지와 양사

9) 刘丹青(2008)은 방위사의 부가 여부를 기준으로 명사를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방위사가 필요 없는 공간명사(上海)와 방위사가 필요한 실체명사(桌子), 그리고 공간과 실체를 겸하는 명사(邮局)로 구분하였다. 이 중 세 번째의 겸용명사는 공간성과 실체성을 동시에 지닌 명사로, 이러한 두 성질의 잠재가 지금까지 존재문의 주어 자격에 관한 토론을 이끌어냈던 배경이 되었던 모호 공간성을 지닌 명사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도식화의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공간량을 표시하는 공간명사는 용기로 비유할 수 있으며, 물량을 나타내는 실체명사는 개체로써 용기에 담기는 내용물에 비유된다. 다시 말해, 두 명사의 속성은 특정한 담화구조에서 단지 한 가지 잠재 능력이 활성화(突出)되면 다른 하나가 억제(隐没)되는 구조로, 두 명사는 상호 어순의 전환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명사 자체의 공간량이 모호하거나 개념적 모순이 발생할 때, 방위사를 공간량의 표지로 삼아야 하는 유표성 명사와 방위사 없이 분포 위치를 통해 공간량을 조절하는 무표성 명사로도 구분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찰은 정적 특성의 명사적 속성과 동적 특성의 동사적 속성을 구별하는 공간성과 시간성의 대비를 통해, 초보적인 경계를 설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는 언어 교제에서 각 품사의 상호 분류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구문에서 사물명사가 지닌 분리성을 ‘물량’으로 파악하는 경계 설정의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즉 명사가 구문에서 체언으로 기능할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간량’과 ‘물량’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본래 명사가 지닌 내부적 특징 또한 내부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도 계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동사가 지닌 시간성 특징을 명사의 속성을 계량하는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사물 내부의 구성에 시간성을 적용할 수 있는냐의 유무에 따라 ‘동태적 사물’과 ‘정태적 사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태적 특징을 지닌 사물명사 “战争、事故、车祸、事件、宴会” 등은 내부에 많은 동적 과정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지시 대상의 의미범주에 일정한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동태적 사건구조를 지닌 명사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연속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공간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태적 특징을 지닌 사물명사 “苹果、大米、尘土、夫妻、成就、鲁迅” 등과 같은 개체명사는 분리성과 대응하여 강한 ‘물량’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공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위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이러한 분리성을 기준으로 ‘물량’을 표시하는 사물명사 또한 ‘내부분리성’과 ‘외부분리성’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내부분리성을 지닌 명사는 ‘面包’, ‘夫妻’ 등과 같이 각기 단독의 개체를 지닌 개체명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외부분리성’을 지닌 명사는 내부 구성성분 사이에는 경계의 구분이 없어 특정한 도구를 통해 계량이 가능한 ‘水、精神’ 등과 같은 물질명사나 추상명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분리성’ 특징을 지닌 사물 중에서 물질명사는 “瓶、杯、桶、缸、碗” 등과 같은 일정한 용기를 통해 계량할 수 있으며, “一瓶水、一杯水、一桶水、一缸水、一碗水”처럼 용기명사가 양사로 작용하기도 한다.<sup>10)</sup> 다만 추상명사는 내부에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외부의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양사의 분리성 특징은 “一点精神”、“一种精神”처럼 모호량이나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는 양사의 도움을 받아 분리성을 부여받음으로써 ‘물량’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상명사의 분리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물의 분리성 또한 그 나름의 강약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내부분리성을 지닌 명사가 가장 분리성이 강하고, 다음으로

10) 이러한 양사를 ‘차용양사’라고 하는 이유이다.

는 외부 용기의 도움을 받아 분할이 가능한 사물이며, 외부 용기의 도움을 받아도 분리될 수 없는 사물은 분리성이 가장 약하다. 사물의 분리성과 명사의 공간성은 자연히 서로 관련되며, 분리성이 강한 사물은 명사의 공간성 또한 강하게 드러난다. 분리성이 약한 사물은 명사의 공간성의 선명도 또한 약하여 구분이 쉽지 않은데, 명사의 공간성 강약은 개체명사>군집명사>물질명사>추상명사의 순서로 그 등급을 매겨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등급에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은 본래 고유명사였던 ‘毛泽东’을 개체양사 ‘个(位)’를 활용하여 더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인지하게 한 것으로, 이 또한 의미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화용적 기능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22) 中国出了个毛泽东. (『东方红』)

중국에서는 모택동이란 인물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수량사 ‘一个’는 특정 개체를 여러 사물 중의 하나로 특정 인물을 부각한다기보다는 형상성을 약화하는 ‘불특정(不定)’화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반면 여럿 중에서 특정한 하나를 선택했다는 각도에서는 특정화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인들의 언어습관은 위의 예문 중에서 ‘个’를 제거한 ‘中国出了毛泽东(중국은 모택동이 나왔다)’에 비해, 특정 개체가 유일무이하다는 선명성과 형상성을 강화한다고 설명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23) 身旁躺着一个车长杰. (转引自齐沪扬1998:75)

(24) 柜台上坐着位少掌柜, 是个新生牛犊. (邓友梅『烟壶』)

(25) 村里有个姑娘叫小芳. (歌词『小芳』)

위 예문의 설명에서 齐沪扬(1998:75)은 고유명사 ‘车长杰、少掌柜、小芳’ 등에 습관적으로 수량사 ‘一个/位’를 부가하여 한정성이 희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감상으로는 중국인의 습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중국인들의 언어 사유는 고유명사에 특정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개체화 혹은 유표화를 통해 ‘물량’을 두드러지게 하는 주요 수단으로 수량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목적어 앞에 수량사가 오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범주의 각도에서 고찰한 양사의 역할은 구문 전환과 중국인의 언어습관을 연계해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예

11) 중국어 개체양사가 ‘个’가 형상성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의견은 李先银(2009), 黄健泰(2014)에서도 볼 수 있다.

문(14)를 양사가 포함된 “村里有个小芳”으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村里有小芳”로는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정화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수량사의 역할은 단순히 양을 일정한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이외에도, 문장성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양범주’의 계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韩国冰坛出了个金妍儿.

(27) 阿根廷又出了个梅西. (『体坛周报』2022.02.11)

(28) 奥索雷斯家居然出了个女文人! (克拉林『庭长夫人』)

(29) 我们部里也出了个文学家. (张洁『沉重的翅膀』)

위의 예문은 최근 검색에서도 찾은 것으로, 본래 ‘一个’가 표현하는 개별화의 특징과 상반되는 ‘주관량’에 더 접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명사가 지니는 사회적 지명도와 그러한 지명도를 강조하는 화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왜 중국인 학자들이 양범주 분석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관량’ 또한 양의 한 범주이지만, 정작 계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국인의 언어 표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주관성’은 본래 ‘一个’가 구문에서 특수성분과 결합함으로써, ‘개체화’를 통해 드러나는 일반성과는 반대인 ‘강주관성’으로 범주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약 전 국민이 모두 아는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물 중의 하나라면 여전히 ‘一个’는 ‘개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개체화’의 어법 표지가 된다고 본다.

그러면 명사의 속성이 지니는 ‘공간량’과 ‘물량’의 대비를 통해, 특정 사물명사가 지니는 ‘물량’의 속성이 지니는 강약을 통해 ‘공간’과 ‘사물’의 인지 기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본래 ‘물량’을 표시하는 성분은 무표성을 지닌 경우가 많은 반면, ‘공간량’은 유표성을 통해서 공간범주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구문에서 ‘공간량’의 ‘물량’의 대비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사실과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물량’의 특징을 지닌 ‘사과(苹果)’와 ‘코끼리(大象)’의 대소(大小)의 대비를 통해, 냉장고(冰箱)가 ‘공간량’을 나타내는 경우를 대비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인지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사과’와 ‘코끼리’가 비록 모두 강한 ‘물량’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냉장고보다 더 큰 크기의 ‘물량’을 지닌 ‘코끼리(大象)’를 냉장고(冰箱)라는 ‘공간량’으로 활성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30) 把苹果放进冰箱.

## (31) 把大象放进冰箱.

위의 예문에서 동사 ‘放进’은 上下도식의 위치이동과 内外도식의 공간범주를 대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把자문’을 활용함으로써 후행하는 목적어는 물량보다는 큰 속성의 공간성을 지닌 성분이 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예문(31)에서는 일반적 인식으로는 ‘冰箱’이 코끼리를 넣을 만큼 강한 ‘공간량’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에, ‘물량’과 ‘공간량’ 사이에 논리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 (32) 把大象放进大冰箱里.

## (33) 把大象放进一个大冰箱里.

만약 위의 예문(31)을 실제 회화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지닌 구문을 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문(32)에서처럼 수식어 ‘大’가를 첨가하거나, 예문(33)처럼 물량의 지표 ‘一个’와 수식어 ‘大’를 동시에 부가하여 ‘冰箱’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수량사 ‘一个’를 통한 주관성과 특정화를 연계시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3. 결어

현대중국어에서 방위사와 양사는 명사가 지닌 공간성의 경계를 더 선명하게 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방위사와 양사의 인지적 토대는 연속성과 분리성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방위사와 명사의 공기, 그리고 양사와 명사의 공기 사이에는 단순히 수의적 선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지적 근거가 존재한다. 속성 양범주는 각 품사가 지닌 공기관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토대가 되며, 분리성이 강한 사물이 언어에 투사될 때는 개체화될 개연성이 크기에 ‘물량’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속성이 강한 명사의 경우에는 공간성이 현저히 두드러진다. 즉 분리성이 약한 사물을 언어에 투사할 때는 상응하는 명사 또한 ‘공간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약공간성’ 명사는 양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명사가 지닌 공간성에 상응하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공간성이 강한 명사는 대부분의 양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사와 양사의 선택관계는 인지적 근거를 통해 공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중국어에서 명사의 속성인 공간성에 대한

양범주의 분석은 ‘공간량’과 ‘물량’의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대립의 기저에는 ‘연속성’과 ‘분리성’의 성질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연속성’은 ‘공간량’으로, ‘분리성’은 ‘물량’으로 대응하며, 이러한 ‘연속성’과 ‘분리성’의 대립은 방위사와 양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선명한 경계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분리성이 강하다는 것은 개체화가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치화가 또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연속성이 강하다는 것은 내부에 다량의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개체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개 추상명사나 집합명사, 혹은 시간성을 지닌 명사 등을 들 수 있다. 또 동사나 형용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도 여전히 이러한 연속성의 제약을 받으며, 용기나 도량형 등을 표시하는 양사의 지원을 받아야만 체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시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중국어 구문에서 명사의 속성 양범주를 구별하는 ‘공간량’과 ‘물량’의 대립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형식 표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형식표지인 방위사와 양사는 구문에서 명사의 특징을 더 선명한 경계를 형성하여 보여주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계는 단순히 표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수식어나 중심어의 선택제약을 유도하게 하는 작용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까지 단순히 방위사와 양사는 의미 없는 허사 성분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구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어법 성분의 다양성이 지니는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李宇明, 『汉语量范畴研究』, 华中师范大学出版社, 2000.

성창익, 『품사성을 통한 명사류어의 품사 통용 가능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2.

Liu Wanying, 『한중일 세 언어의 품사 대조 연구 : 명사, 동사, 형용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2.

### <논문>

김정필, 「중국어 ‘검류’의 형성과 기능전환의 상관성 분석 - 형용사의 명물화와 명사의 형질화를 중심으로」, 『中国学』, 제84호, 2023.

성창익, 「한국어 명사류 품사와 부사의 통용 현상에 대하여」, 『우리말학회』, Vol.68, 2022.

刘顺刘·雪 芹, 「汉语名词和量词组合的认知研究」, 『南京师范大学文学院学报』, 第2期, 2010.



- 惠红军, 「汉语量词超常搭配的动因分析」, 『贵州民族学院学报』, 第1期, 2011.
- 黄健秦, 「“空间量—物量”范畴与存在构式」, 『语言教学与研究』, 第6期, 2018.
- 卢福波, 「基于汉语特点的名量范畴及其认知教学研究」, 『天津师范大学学报』, 第1期, 2021.
- 李 明, 「量词及量范畴再思考」, 『社科纵横』, 总第28卷, 2013.09.
- 梁如娥, 「数量名结构空间量度义的认知突显」, 『通化师范大学文学院学报』, 第1期, 2020.
- 龙 涛, 「量词对名词空间义的表达」, 『湖南科技大学学报』, 第7卷第5期, 2004.09.
- 刘小梅, 「汉语量词的语义分辨及进行式动词组中量词的使用」, 『世界汉语教学』, 第4期(总30期), 1994.
- 杨永忠, 「量词的性质及量词结构的构造」, 『浙江外国语学院学报』, 第4期, 2019.0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量范畴, 空间性, 时间性, 程度性, 方位词, 量词				
	영문	Quantity categories, Spatiality, Temporality, Degree, Locative words, Quantifiers				
<div>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the Quantity Categories of Nouns</div> <div>Kim Jeong-Pil</div> <p>This paper briefly examines how seman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categories, which serve as the standard for part-of-speech classification, are quantified through the theory of "quantity category". "Quantity category" is the emerging topic in chinese linguistics for categorizing part-of-speech Attributes. The 'quantity category' analysis presents the spatiality of nouns, the temporality of verbs, and the degree of adjectives, based on the properties of real sentences. However, in Chinese, the boundaries between of parts of speech for individual words are ambiguous, so the quantitative categories of a substantive presented in this text are analyzed with a focus on denominations, and the process of quantification from phrases to a substitutive with noun properties is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meaning and function.In addition, spatiality, which is an attribute of a noun, is largely divided into 'space quantity' and 'object quantity', and in actual phrases, azimuth words and quantity, which are category cover of space quantity, were examined by contrasting them with 'quantifiers', which is category cover of object quantity.</p> <p>In addition, we approached how 'space quantity' and 'volume', which constitute spatiality, which are both attributes of a noun, are recognized in actual phras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irection' and 'quantity'.</p>						
저 자	김정필 / 金正必 / Kim Jeong-Pil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4.02.09.	심 사 일	2024.03.04.	게재확정일	2024.03.11.